

델파이 분석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힐링 프로그램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김현아¹ · 김현나²

¹서울사이버대학교 부교수·²청암대학교 조교수

A Study on the Direction of Healing Program Development for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 Delphi Analysis

Hyun-Ah, Kim¹ · Hyunna, Kim²

¹Seoul Cyber University·²Cheongam College

Abstract

This is a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a healing program for North Korean refugees for North Korean refugees healing experts. For this purpose, After drawing Delphi questions through FGI 1 session with 11 expert panels, Delphi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5 experts, over a total of 2 surveys(July 12, 2021 to August 3, 2021). The appropriateness of the healing program for North Korean refugees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purpose, components, and healing contents.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8/17 goals of the healing program, 5/10 principles of composition, 7/10 healing methods, 6/8 components, 5/6 healing types and sequences, and 11/15 healing contents were suggested.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basic data for the direction of the healing program development for North Korean refugees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healing experts.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s, healing program, Delphi analysis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힐링 프로그램, 델파이 분석

본 연구는 2021년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5-1-2021-1250114)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yun-Na

E-mail: hyunna73@naver.com

Received: July, 31, 2022 Revised: September, 11, 2022 Accepted: September, 26, 202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022년 3월 기준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은 33,826명으로, 여성이 72.0%이며,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3,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 2021년에는 63명이 입국하였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4. 제정)에 따라 201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제2 하나원)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안정 및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통일부, 2022).

하지만 남북하나재단의 2020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3,000명 대상) ‘지난 1년간 자살 충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로 2019년 대비 0.6% 높았고, 남한주민 대비 7.8% 높았다. 자살 충동의 이유로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29.1%)’, ‘경제적 어려움(28.5%)’, ‘외로움과 고독(2.3%)’ 순이었으며, 남한주민 대비 ‘경제적 어려움(9.7%)’보다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10.1%)과 ‘외로움과 고독’(3.4%)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남북하나재단, 2021). 이를 통해 남한주민의 자살 충동의 원인이 경제적 문제인 것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심신질환과 외로움과 고독이 자살 충동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 26편의 북한이탈주민 3,400명을 대상으로 한 우울과 PTSD 관련 변인을 메타분석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요 변인은 성별, 연령별, 연구 샘플, 문화적응스트레스, 불안, 자존감, 사회적 지지, 개입프로그램 8개였다.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를 검증한 결과 우울과 PTSD에 효

과크 기가 가장 큰 것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인이었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듯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우울과 PTSD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현아, 2016).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대부분은 초기 남한 사회적응 기관인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적 및 물질적 지원에 집중되어있다. 중장기 정착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향상, 건강 회복에도 불구하고 남북분단 상황에 따른 가족들과 분리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감은 여전히 이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원인인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뿐 아니라 심리적 적응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상담 및 심리치료 동향 중 증거기반의 웰니스(Wellness) 심리상담 모델(Myers & Sweeney, 2004)은 정신과 신체, 정서의 통합과 관련된 상태인 웰니스 패러다임을 통해 내담자의 최적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발달적, 예방적, 그리고 웰빙 중심적 접근법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신과 치료나 심리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거부감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힐링 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힐링의 어원은 그리스어 ‘Holos’로 전체(Whole), 건강(Health), 신성(Holy) 등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Healing’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하나 되어 온전해진다는 의미로, 사전적으로는 몸이나 마음의 치유(Oxford, 2021)로 정의된다. 힐링에 대한 개념은 학문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고 대개 심신의 치유, 회복과 같은 대중적 의미로 쓰인다. ‘힐링’ 체계에 대한 비교 문화 연구를 살펴보면 힐링에는 보편적 요소와 문화 특수적 요소가 있으며 힐링의 의미나 장소와 공간, 힐링의 메커니즘과 효과는 문

화권마다 다양하다(Frank, 1973).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사회적응이나 경제적인 지원만큼이나 심리적, 여가적 측면의 치유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힐링 프로그램이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이란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화된 레크리에이션의 한 영역이다(Carter, Van Andel, & Robb, 1985). 또한 치료레크리에이션의 촉진 기법은 신체활동, 정서적 표현과 통제, 인지적 자극과 웰빙과 관련하여 운동, 분노 조절, 명상, 놀이 등 다양한 기법과 활동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에(Dattilo, & McKenny, 2016) 심신의 치유, 즉 힐링 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

Kensinger, Gearig, Boor, Olson, Stumbo, & Singleton(2007)은 죽음과 박해, 기타 트라우마 경험을 피해서 미국으로 입국한 난민을 대상으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치료레크리에이션이 난민들의 미국 중서부 삶의 적용에 효과적이었음을 밝혔다. 10~60대의 아프간 난민 남녀 12명을 대상으로 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에게 즐거운 여가활동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문화적 강점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었고 타국의 삶에서 받은 스트레스 적용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Stack, & Iwasaki, 2009).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과 유사한 연구는 주로 통일부 하나원 내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산림치유 및 숲 치유(이정희, 김은미, 2014)에 국한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역사회 초기 정착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가 교육모델 기반의 힐링캠프(노용구, 2012), 제3국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체성 교육 위주의 힐링캠프(윤현기, 2020), 미술 치료(변미희, & 강기정, 2005) 등이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 힐링 프로그램 대상들은 하나원 내 여성이나 초기 정착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힐링의 의미를 가진 프

로그램 내용의 경우 기존의 남한 숲 치유 활동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남한입국 초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내용에 그치고 있다

힐링에 관한 선행연구를 목적 중심으로 구분하면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상자의 우울감과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심리프로그램(배상희, 최미영, 이영희, 신정은, 장양민, 2020),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인 공동체 정원 가꾸기(Hartwig, & Mason, 2016) 원예 프로그램(Wu, Chao, Tsai, & Chen, 2020), 댄스(Crumbie, Olmos, Watts, Avery, & Nelson, 2015) 등이 적용되었다. 문학 활동은 노인분들의 삶의 의지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표 1. 목적별 적용 가능한 힐링 활동 분석

목적	활동 예시(연구자, 연구년도)
우울감소 자아존중감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의 응어리 해소, ·명상 작업 ·만다라 작업, ·집단무의식을 통해 나의 마음 중심 잡기(배상희, 최미영, 이영희, 신정은, 장양민, 2020) •원예프로그램(Wu, Chao, Tsai, & Chen, 2020) •공동체 정원 가꾸기(Hartwig, & Mason, 2016) •댄스(Crumbie, Olmos, Watts, Avery, & Nelson, 2015)
삶의 의지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을 통한 치유, 문해 노인 대상 시 창작을 통한 치유 경험, '깨내기'-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추고 싶은 경험을 시로 형상화, '풀기'- 부정적 심리 상태에서 긍정적 심리 상태로 이행, '즐기기'- 창작 행위 자체의 즐거움 누리(김정우, 2014)
체형 및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갯벌 체험, 가을소풍(전명희, 2011)
스트레스 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리에이티브 스포츠(송선섭, 이민규, 2013) •마스크 게임(송미애, 2000)
및 스트레스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몸으로 즐기기, ·아침체조(윤현기, 2020) •선호 노래 함께 부르기(정현정, 2000)
가족관계증진 및 사회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열기-서로에게 고마운 점, 미안한 점, 바라는 점 3가지, 부모자 녀의 이야기 재구성,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협력하여 더 나은 의사소통 방식 찾기, 각자의 강점 말해주기, 내 마음 말하기(조은숙, 김민경, 김소영, 권혜영, 2020) •비밀편지(엄마와 나누는 비밀이야기), 그림으로 나 표현하기(윤현기, 2020) •사람을 찾습니다. 여가 빙고, 마임으로 표현하기(노용구, 2012)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어로빅, 요가, 라인댄스, 덤터쿱 체조, 심폐 지구력, 근력과 유연성 증진, 호흡명상, 걷기 명상, 웃음 명상(박수현, 박주영, 2015) •신체중심 레크리에이션(Nagata, McCormick, David, & Austin., 2020)
정체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나라 명소 만들기(송성섭, 이민규, 2013)

(김정우, 2014), 체험과 관광 활동(전명희, 2011)은 그 자체가 힐링의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동작 중심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었으며(송미애, 2000; 송선섭, 이민규, 2013, 윤현기, 2020; 정현정, 2009), 가족이 참여하여 서로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관계 개선 활동(노용구, 2012; 윤현기, 2020),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프로그램(박수현, 박주영, 2015; Nagata, McCormick, David, & Austin, 2020)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정체감 형성 활동(송성섭, 이민규, 2013)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아 인식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의 구성과 접근 방식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힐링 요소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집단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북한이탈 여성이나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이나 노인 등 대상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 FGI 및 델파이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의 방향과 구성 방법을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의 구성 방법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된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 힐링 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했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대상자는 총 15명으로, 교수 3명(미술치료 1명, 놀이치료 및 음악치료, 예술치료, 명상심리치료 전문가 1명, 상담심리사 1급 1명), 숲 치유 경험 정신과 전문의 1명, 북한이탈주민 전문 의료기관 정신과 전문의 1명 및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 4명, 남북하나재단 외부 놀이치료 전문가 1명, 다문화 청소년 기

표 2. 전문가 델파이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번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관련 자격증	관련경력 (년)	북한이탈주민대상 힐링진행/기획경력
1	남	40대	박사	교수	영국 미술치료사	13	2회
2	여	30대	석사	숲체험 산림교육팀 팀장	산림치유지도사 2급, 숲생태해설사	2	2년
3	여	30대	석사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전문상담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11	7년
4	여	30대	박사과정	탈북 및 다문화 청소년 심리치료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7	7년
5	여	40대	석사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2급, 기독교상담사 1급	11	4
6	여	40대	박사과정	놀이치료사	놀이치료사, 정신건강증진상담사 2급	5	8개월
7	여	50대	석사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전문상담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11	11년
8	여	60대	박사	교수	놀이치료, 예술 및 명상심리치료전문가	21	3년
9	남	50대	박사	의사	정신의학과 전문의	29	1회
10	여	40대	박사	교수	상담심리사 1급	10	5년
11	여	50대	석사	힐링 지도자	숲길체험지도사, 요가명상지도자	13	2회
12	남	40대	박사	의사	정신의학과 전문의	7	13년
13	여	50대	박사	연구교수	중등상담교사	1	20년
14	여	40대	박사	한의사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1	11개월
15	남	50대	박사	연구위원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11	5년

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명, 산림치유 및 명상 힐링 전문기관 종사자 2명,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 1명, 통일학 박사 연구교수 1명이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방법

일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힐링에 관련된 문헌 연구를 고찰하였고, 2021년 6월 1일~2021년 7월 11일 동안 북한이탈주민 현장 전문가 15명을 델파이 전문가 패널로 선정하고 이들 중 인터뷰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참여자 1~11번) 북한이탈주민용 힐링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요소 등에 관한 FGI를 통해 델파이 문항을 개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줌 화상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FGI의 주요 질문내용은 귀하가 생각하는 (1)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가? (2)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의 목표와 기능은 어떠한가 한다고 보는가? (3)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의 구성 방법 및 기타 운영 방안은 어떠한가 한다고 보는가? 이었다. 미리 남한의 힐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힐링의 개념에 대해 추가 답변을 해 주어 북한이탈주민용 힐링 프로그램에 적합한 요소와 방식을 도출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한다. FGI 면접은 2021.6.7~6.13 간 2~3명씩 1 집단에 약 60분에서 90분 정도로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FGI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힐링 요소의 유기적 연결, 멈춤과 쉬의 적절한 조화, 대외 환경적 힐링 요건의 조성이었다고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힐링 요소와 힐링 촉진 방식은 건강 힐링의 필요성, 사회적 나눔 힐링 요소의 필요성, 북한 정서를 고려한 힐링 방식과 요소, 힐링을 위한 탈 문화적 접근, 최신 유행을 감안 한 다양한 힐링 요소의 배치였다. 문헌 고찰, 힐링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

북한이탈주민 힐링 전문가의 FGI 결과를 종합하여 공동연구진들이 함께 논의한 후 총 66개의 델파이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2021년 7월 12일~2021년 8월 3일 동안 총 2회에 걸쳐 이메일을 통하여 델파이 조사를 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총 66문항에 대한 각 문항의 중요도에 따라 0~9점 중 해당하는 점수를 평정하도록 하였고, 1차 분석 과정에서 64문항이 통계적으로 타당하였다(삭제 문항 예: 타 기관과 중복되는 “북한 음식 만들기”).

2차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는 64문항 중 기존 내용을 구분하거나(예: 4-3. 지역 특색 힐링 관광, 4-4. 최신 유행의 다양한 힐링 체험을 따로 구분),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문항(예: 3-10. 참여자가 선택하고, 추후 참여를 고려한 가변적 적용)으로 수정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델파이 조사과정에서 2차 델파이 조사를 거부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힐링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총 53 문항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본 연구 절차에 대한 연구 흐름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흐름도



3. 자료분석 방법

본 조사 문항들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1차 수집된 자료를 SPSS 21.0과 EXCEL을 사

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내용 타당도 비율인 CVR(content validity ratio), 전문가 합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합의도, 수렴도의 값을 통계처리 하였다. 이때 CVR 분석은 응답률이 전체의 50% 이상일 때 해당 문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CVR 값은 ‘타당하다’는 응답률이 50%보다 적으면 ‘음수’, 50%일 때, ‘0’, 100%일 때 1이 된다. 즉, 50-100%일 때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닌다(노진원, 김현아, 김유정, 박현춘, 우종민, 2016). Lawshe(1975)는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수에 따른 CVR 최소 기준 값 이상을 가진 목만이 내용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15명으로 <표 4>와 같이 CVR 최소 기준 값인 0.49를 충족시켜야 한다.

유성은(2018)은 9점 Likert 척도의 경우 평정된 문항별 평정 평균이 7점 이상 또는 7점 이상 동의율이 70% 이상이면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이 조사에서 사용된 9점 Likert 척도를 기준으로 7점 이상을 평정한 전문가들의 수를 ‘타당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수로 적용하여 CVR 값을 산정하고, 응답률이 50% 이하인 문항의 선별과 CVR의 최소 기준 값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델파이 전문가들의 의견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합의도와 수렴도를 산출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합의도} = 1 - \frac{Q_3 - Q_1}{Mdn}$$

$$\text{수렴도} = \frac{Q_3 - Q_1}{2}$$

Mdn은 중앙값이며, Q1과 Q3는 각각 제1사분위와 제3사분위 계수로서 전체 사례 수의 누적 값 중 25%, 75% 값을 의미한다. 합의도는 Q1과 Q3이 일치하여 합의가 되면 1의 값을 갖게 되고, Q1과 Q3의 간격이 커짐에 따라 의견의 편차가 커져서 수치가 감소하게 된다. 반면, 수렴도는 패널들의 의견이 모두 수렴되었을 때 0의 값을 가지게 되며, 의견의 편차가 클수록 값이 커지게 된다. 서경아, 정종원(2020)은 전문가 패널들의 합의도가 0.75 이상, 수렴도가 0-0.5일 경우 패널들의 의견의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참여하며, 인간의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IRB 심의를 거쳐 최종승인 후 진행하였다.(AN002-20210621-HR-003-010)

Ⅲ. 연구결과

1. 북한이탈주민 힐링 프로그램 목적의 적절성

제2 하나원 내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목적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6.20~7.87, 표준편차 1.28~4.47로 나타났다. CVR값은 0.20~0.87로 나타났으며, 1-6, 1-7, 1-8, 1-9번 문항이 타당한 값을 보였다. 또

표 4. 응답자 수에 따른 CVR 최소 값 기준

응답자 수	CVR 최소값(α.05)
10	.62
11	.59
12	.56
13	.54
14	.51
15	.49
16	.42
17	.37
18	.33
19	.31
20	.29

표 5.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목적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목적	1차					2차				
	M	SD	CVR	합의도	수렴도	M	SD	CVR	합의도	수렴도
1-1. 문화적응 과정에서 오는 몸과 마음의 긴장감을 해소한다.	7.73	4.47	0.47	0.67	1.50	8.07	0.70	1.00	0.88	0.50
1-2. 남한 삶에서 쌓였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	6.67	1.91	0.20	0.71	1.00	6.93	0.88	0.47	0.71	1.00
1-3. 다양한 힐링 체험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진다.	7.00	1.84	0.33	0.71	1.00	7.40	1.06	0.60	0.88	0.50
1-4. 충분한 쉼과 휴식을 통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	7.40	1.60	0.20	0.63	1.50	7.47	1.06	0.60	0.88	0.50
1-5. 몸과 마음 건강의 조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7.20	1.30	0.47	0.50	2.00	7.07	1.22	0.60	0.86	0.50
1-6.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행복감을 추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7.60	1.70	0.60	0.75	1.00	7.33	1.18	0.60	0.88	0.50
1-7.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다.	7.73	1.40	0.60	0.75	1.00	7.53	0.74	0.87	0.88	0.50
1-8. 몸과 마음의 여유를 통해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되찾는다.	7.87	1.28	0.87	0.75	1.00	7.93	1.03	0.87	0.88	0.50
1-9.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7.87	1.30	0.73	0.88	0.50	7.60	0.99	0.87	0.88	0.50
1-10.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6.33	1.60	0.07	0.57	1.50	6.87	1.06	0.20	0.71	1.00
1-11. 여가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6.60	1.80	0.33	0.57	1.50	6.33	1.45	0.07	0.71	1.00
1-12.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성취감을 고취한다.	6.20	1.68	0.20	0.43	2.00	6.20	1.26	-0.20	0.83	0.50
1-13. 어눌함을 통해 참여 동반자와의 친밀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키운다.	6.47	2.34	0.20	0.57	1.50	6.73	1.10	0.07	0.71	1.00
1-14. 탈북민 참여자 간의 교류를 통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랜다.	6.73	2.07	0.33	0.71	1.00	6.40	2.06	-0.07	0.67	1.00
1-15. 이방인으로서의 정체감을 재정립한다.	6.93	1.79	0.33	0.71	1.00	6.80	1.15	0.20	0.71	1.00
1-16. 협동과 나눔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주변 세계를 돌아보는 이타심을 기른다.	6.53	1.83	0.33	0.71	1.00	6.53	1.60	0.33	0.71	1.00
1-17. 신체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으로 신체능력향상과 건강관리 습관을 기른다.	7.07	1.68	0.47	0.75	1.00	6.60	1.30	0.33	0.57	1.50

한 합의도는 0.43~0.88로 1-6, 1-7, 1-8, 1-9번이 타당한 값을 보였으며, 수렴도는 0.50~2.00으로 1-9번 문항만 기준 값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 문항별 전문가들 간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6.20~8.07, 표준편차 0.70~2.06으로 나타났다. CVR값은 -0.07~1.00로 나타났으며, 1-1, 1-3, 1-4, 1-5, 1-6, 1-7, 1-8, 1-9번이 타당한 값을 보였다. 또한 합의도는 0.71~0.88을 보였으며, 수렴도는 0.50~1.00으로 보였다. 이때 1-1, 1-3, 1-4, 1-5, 1-6, 1-7, 1-8, 1-9, 1-12번의 다수의 문항들이 기준 값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패널들 간의 의견이 긍정적인 합의점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1-1 문화적응 과정에서 오는 몸과 마음의 긴장감을 해소한다', '1-3. 다양한 힐링 체험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진다', '1-4. 충분한 쉼과 휴식을 통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 '1-5. 몸과 마음 건강의 조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1-6.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행복감을 추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1-7. 긍정적인 자아

상을 가진다', '1-8 몸과 마음의 여유를 통해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가진다' '1-9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였다.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간의 변화를 평균값에 따른 1~3순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에서는 '1-9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1-8, 몸과 마음의 여유를 통해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가진다', '1-7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다', '1-1 문화적응 과정에서 오는 몸과 마음의 긴장감을 해소한다'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에서는 '1-1 문화적응 과정에서 오는 몸과 마음의 긴장감을 해소한다', '1-8 몸과 마음의 여유를 통해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가진다' '1-9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순위에 변화가 있었다.

2 북한이탈주민 힐링 프로그램 구성원리의 적절성

제2 하나원 내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구성의 원리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6.47~8.13, 표준편차 0.76~1.98로 나타났다. CVR

표 6.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1차					2차				
	M	SD	CVR	합의도	수렴도	M	SD	CVR	합의도	수렴도
2-1. 일상 탈피를 위한 다양한 힐링 체험의 구성	6.47	1.81	0.20	0.57	1.50	6.93	1.22	0.33	0.71	1.00
2-2. 전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웰니스 접근	7.67	1.63	0.60	0.75	1.00	8.07	0.59	1.00	1.00	0.00
2-3. 탈북민의 심리적 긴장 요소의 배제(글쓰기, 교육 자양)	6.73	1.98	0.07	0.57	1.50	6.53	1.36	-0.07	0.67	1.00
2-4. 건강 체크(한방 힐링 포함) 및 오감치유 요소를 도입한 신체기반 접근	7.80	1.32	0.60	0.75	1.00	7.60	1.06	0.87	0.88	0.50
2-5. 지역 특색 힐링 관광지원(강원지역 웰니스 관광)과 제2 하나원 내 자연 환경적 요소의 결합	7.07	1.75	0.47	0.71	1.00	7.13	1.36	0.47	0.71	1.00
2-6. 대상자 욕구에 기반 한 활동 영역과 프로그램 내용반영	8.13	1.13	0.87	0.88	0.50	8.13	0.83	0.87	0.88	0.50
2-7. 타 기관 힐링 프로그램과의 대상의 차별화(증장기정착민 중 이중 취약 계층인 모자가정과 노인 대상 탈북민)	8.00	0.76	1.00	0.75	1.00	8.20	0.77	1.00	0.88	0.50
2-8. 타 기관 힐링 프로그램과의 홍보 방법의 차별화(초기 사회적응기관(하나센터) 밖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6.67	1.40	0.07	0.57	1.50	6.80	1.08	0.47	0.71	1.00
2-9. 타 기관 힐링 프로그램과의 운영시간의 차별화(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는 주말 활용 1박 혹은 2박의 숙박)	7.27	1.79	0.47	0.63	1.50	7.13	1.19	0.47	0.71	1.00
2-10. 타 기관 힐링 프로그램과의 공간 활용의 차별화(힐링 공간으로서 제2 하나원의 재해석과 의미부여)	7.00	1.85	0.60	0.86	0.50	6.93	0.59	0.60	1.00	0.00

값은 0.20~0.87로 나타났으며, 2-2, 2-4, 2-6, 2-7, 2-10번 문항이 타당한 값을 보였다. 또한 합의도는 0.57~0.88로 2-2, 2-4, 2-6, 2-7, 2-10번이 타당한 값을 보였으며, 수렴도는 0.50~1.50으로 2-6, 2-10번 문항만 기준 값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 문항별 전문가들 간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균 6.53~8.20, 표준편차 0.59~1.22로 나타났다. CVR값은 -0.07~1.00으로 나타났으며, 2-2, 2-4, 2-6, 2-7, 2-10번이 타당한 값을 보였다. 또한 합의도는 0.67~1.00을 보였으며, 수렴도는 0.00~1.00으로 보였다. 이때 2-2, 2-4, 2-6, 2-7, 2-10번의 다수의 문항들이 합의도와 수렴도의 기준값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패널들의 의견이 긍정적인 합의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문항은 '2-2. 전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웰니스 접근', '2-4. 건강 체크(한방 힐링 포함) 및 오감치유 요소를 도입 한 신체기반 접근', '2-6. 대상자 욕구에 기반한 활동 영역과 프로그램 내용의 반영', '2-7. 타 기관 힐링 프로그램과의 대상의 차별화', '2-10. 타 기관 힐링 프로그램과의 공간 활용의 차별화'였다.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간의 변화를 평균

값에 따른 1~3순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에서는 '2-6 대상자 욕구에 기반한 활동영역과 프로그램 내용의 반영', '2-7, 타 기관 힐링 프로그램과의 대상의 차별화', '2-4 건강체크(한방 힐링 포함) 및 오감 치유 요소를 도입한 신체기반 접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에서는 '2-7, 타 기관 힐링 프로그램과의 대상의 차별화.' '2-6 대상자 욕구에 기반 한 활동영역과 프로그램 내용의 반영', '2-2 전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웰니스 접근' 순으로 나타나 동일한 문항에 1순위와 2순위에 변화가 있었고, 3순위에 2-6 문항이 새롭게 추가 되었다.

3.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방법의 적절성

제2 하나원 내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의 방법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6.07~8.33, 표준편차 1.05~2.31로 나타났다. CVR값은 -0.07~0.87로 나타났으며, 3-3, 3-4, 3-5, 3-6, 3-7, 3-9번 문항이 타당한 값을 보였다. 또한 합의도는 0.33~0.89로 3-3, 3-4, 3-5, 3-6, 3-9번

표 7.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방법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방법	1차					2차				
	M	SD	CVR	합의도	수렴도	M	SD	CVR	합의도	수렴도
3-1. 힐링 프로그램(개념, 필요성, 원리,주의점) 기초교육(사전OT)	6.07	2.31	-0.07	0.33	2.00	6.67	1.05	0.07	0.71	1.00
3-2. 재미있는 놀이중심의 힐링(치료 레크리에이션 포함)	7.07	1.58	0.33	0.43	2.00	7.20	0.94	0.60	0.86	0.50
3-3. 활동중심의 힐링	7.73	1.10	0.87	0.75	1.00	7.53	0.83	0.73	0.88	0.50
3-4. 체험중심의 힐링	8.33	1.05	0.87	0.89	0.50	8.27	0.80	0.87	0.88	0.50
3-5. 자연친화적 힐링	7.87	1.06	0.73	0.75	1.00	8.13	0.83	1.00	0.75	1.00
3-6. 상호작용 중심의 힐링	7.60	1.24	0.60	0.75	1.00	7.80	1.01	0.73	0.75	1.00
3-7. 표현중심의 힐링	7.53	1.13	0.60	0.71	1.00	7.53	0.92	0.73	0.88	0.50
3-8. 협동과 나눔의 힐링	7.53	1.36	0.47	0.63	1.50	7.67	0.90	0.73	0.88	0.50
3-9. 개별적 힐링과 집단적 힐링의 병행	7.60	1.30	0.60	0.88	0.50	7.93	0.80	0.87	1.00	0.00
3-10. 참여자가 선택하고, 추후 참여를 고려한 가변적 적용	추가문항					7.93	0.70	1.00	0.88	0.50

이 타당한 값을 보였으며, 수렴도는 0.50~2.00으로 3-4, 3-9번 문항만 기준값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 문항별 전문가들 간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6.67~8.27, 표준편차 0.80~1.05로 나타났다. CVR 값은 0.07~1.00으로 나타났으며, 3-3, 3-4, 3-5, 3-6, 3-7, 3-8, 3-9, 3-10번이 타당한 값을 보였다. 또한 합의도는 0.71~0.88을 보였으며, 3-2, 3-3, 3-4, 3-5, 3-6, 3-7, 3-8, 3-9, 3-10번이 타당한 값을 보였다. 수렴도는 0.50~1.00으로 3-2, 3-3, 3-4, 3-7, 3-8, 3-9, 3-10번의 다수의 문항들이 기준값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패널들의 의견이 긍정적인 합의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문항은 ‘3-3. 활동중심의 힐링’, ‘3-4. 체험중심의 힐링’, ‘3-7. 표현중심의 힐링’, ‘3-8. 협동과 나눔의 힐링’, ‘3-9. 개별적 힐링과 집단적 힐링의 병행’, ‘3-10. 참여자가 선택하고, 추후 참여를 고려한 가변적 적용’이었다.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간의 변화를 평균 값에 따른 1~3순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에서는 ‘3-4 체험중심의 힐링’, ‘3-5, 자연친화적 힐링’, ‘3-3 활동중심의 힐링’ 순으로 나타났다. 2차에서도 ‘3-4 체험중심의 힐링’, ‘3-5, 자연친화적 힐링’, ‘3-9 개별적 힐링과 집단적 힐링의 병행’ 및 ‘3-10 참여자가 선택

하고, 추후 참여를 고려한 가변적 적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3-5, 자연친화적 힐링’은 수렴도 값이 1.00으로 0~0.5 기준 값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 문항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적절성

제2 하나원 내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6.27~7.93, 표준편차 0.72~2.34로 나타났다. CVR 값은 0.20~0.73으로 나타났으며, 4-5, 4-8번 문항만 타당한 값을 보였다. 또한 합의도는 0.57~0.75로 4-5, 4-8번이 타당한 값을 보였으며, 수렴도는 1.00~1.50으로 모든 문항이 기준 값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 문항별 전문가들 간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6.67~8.13, 표준편차 0.80~1.33으로 나타났다. CVR 값은 0.20~1.00으로 나타났으며, 4-1, 4-2, 4-5, 4-6, 4-7, 4-8번이 타당한 값을 보였다. 또한 합의도는 0.71~0.88을 보였으며, 4-1, 4-2, 4-4, 4-5, 4-6, 4-7, 4-8번이 타당한 값을 보였다. 수렴도

표 8.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1차					2차				
		M	SD	CVR	합의도	수렴도	M	SD	CVR	합의도	수렴도
4-1. 정체감 관련 부리 찾기	<공동> - 하나원에 흔적을 남기고 부리를 내리는 나무삼기 <노인 특화> - 북한 정원 관람하기(북한에서 나는 식물과 꽃) - 지도(구글)에서 찾아본 고향 마을(통일 지도) - 추억의 전통 놀이 체험과 변형된 민속놀이	7.47	1.60	0.47	0.63	1.50	7.47	0.83	0.73	0.88	0.50
4.2. 사회적 힐링 요소	- 참여 동반자와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기 - 참여 동반자와의 어울림을 통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 참여 동반자와의 어울림을 통한 운동 활동 - 참여 동반자와의 어울림을 통한 작품 활동 - 참여 동반자와 협동화 작업 활동 - 만들기 체험활동 후 작품일부를 자율적으로 나눔 활동	7.27	1.87	0.47	0.63	1.50	7.33	0.72	0.73	0.86	0.50
4-3. 지역 특색 힐링 관광	- 힐링 관광(강원지역 웰스 관광)	6.27	2.34	0.20	0.57	1.50	6.67	1.18	0.20	0.71	1.00
4-4. 최신 유행의 다양한 힐링 체험	- 캠프파이어(마시멜로 구워먹기,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각을 정리하고 나를 돌아보기) - 최신 유행의 힐링 활동(특히, 모자카장: 유행댄스 따라 하기, 런닝맨 따라 하기), - 워크캘리(포스트를 정해서 스피드하게 팀별로 힐링하기: 팀별로 힐링하기: 스피드하게 or 점수제)	기존 내용(4.3+4.4 문항을 따로 구분한 추가 문항					7.27	1.33	0.47	0.75	1.00
4-5. 자연치유적 요소	- 숲 속 걷기와 명상 - 힐링 관광(강원지역 웰스 관광)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느껴보기 - 임산물(예: 밤, 잣, 감, 딸기) 체험활동 - 원예치료 활용(가족정원 만들기, 북한정원 관람하기, 기념식수, 허비플라يوم 만들기) - 자연과의 교감(꽃 이름대기, 꽃의 의미 알아보기, 꽃 되어 보기 등) - 휴식과 이완: 숙소 내 온천	7.80	1.21	0.60	0.75	1.00	8.13	0.74	0.87	0.88	0.50
4-6. 움직임의 치유요소	- 정적 동작활동: 숲에서 걷기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밸런스 요가, 도구 활용 요가 - 자연스러운 춤사위 - 운동: 탁구, 배드민턴, 축구, 족구, 배구, 볼링 - 전통 레크리에이션(시장보기, 팀 빌딩프로그램, 판 뒤집기 등) - 치료 레크리에이션 기반 신체활동(바르게 걷기, 걷기코스 원주, 댄스활동, 포크댄스, 댄스스포츠, 뉴 스포츠)	7.27	1.83	0.47	0.63	1.50	7.73	1.03	0.60	0.88	0.50
4-7. 정서적 힐링 요소	- 자연스러운 친교활동 - 감사명상 - 감정 및 삶의 의미 찾기 - 만다라 그리기	7.20	1.66	0.33	0.63	1.50	7.67	0.98	0.73	0.88	0.50
4-8. 오감 치유 요소	* 후각/미각 치유요소 -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는 음식과 차 마시기(커피, 한방 차 포함) - 아로마 힐링(아로마 향을 음미하여 근육의 이완을 도와 신체 피로를 풀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프로그램) - 캠프파이어(마시멜로 구워먹기,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각을 정리하고 나를 돌아보기) * 청각 치유요소 - 노래 부르기(선호 음악, 남한의 유행 노래, 트로트, 북한고향노래) - 음악 감상(영상음악) - 소리명상(숲 속의 새소리, 풍경소리 등) - 핸드 벨 연주하기, - 겹타(겹으로 하는 난타/음악활동) * 촉각 치유요소 - 공예품 만들기(허브 플라리움(Herbaflorium): 생활원에 겸 이를 활용해 만드는 포인트 소품의 일종. 보존기능이 있는 특수용액 속에 드라이플라워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담가 보관하는 기법. 향수 만들기 등) * 시각 치유요소 - 만다라 그리기, 협동화 그리기 - 지역특색 힐링 관광 보고 느끼기	7.93	1.10	0.73	0.75	1.00	8.13	0.74	1.00	0.88	0.50

는 0.50~1.00으로 4-1, 4-2, 4-5, 4-6, 4-7, 4-8 번의 다수의 문항들이 기준 값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패널들의 의견이 긍정적인 합의점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문항은 ‘4-1. 정체감 관련 뿌리 찾기’, ‘4.2. 사회적 힐링 요소’, ‘4-5. 자연치유적 요소’, ‘4-6. 동작활용의 치유요소’, ‘4-7. 정서적 힐링 요소’, ‘4-8. 오감 치유 요소’이었다.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간의 변화를 평균 값에 따른 1~3순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에서는 ‘4-8, 오감치유 요소’, ‘4-5 자연치유적 요소’, ‘4-1정체감 관련 뿌리 찾기’순으로 나타났다. 2차에서는 ‘4-8, 오감치유 요소’, ‘4-5 자연치유적 요소’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6 동작 활용의 치유요소’, ‘4-7 정서적 힐링 요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2~3순위에 새로운 문항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5.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형태와 순서의 적절성

제2 하나원 내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의 형태와 순서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7.00~8.47, 표준편차 0.64~1.96으로 나타났다. CVR값은 0.20~1.00으로 나타났으며, 5-1, 5-2, 5-4, 5-5번 문항만 타당한 값을 보였다. 또한 합의도는 0.50~0.89로 5-1, 5-2, 5-4, 5-5번이 타당한 값을 보였으며, 수

렴도는 0.50~2.00으로 일부 5-1, 5-4, 5-5 문항이 기준 값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문항별 전문가들간의 견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평균 7.60~8.47, 표준편차 0.52~1.06으로 나타났다. CVR값은 0.73~1.00으로 모든 문항이 타당한 값을 보였다. 합의도는 0.75~1.00으로 모든 문항이 타당한 값을 보였으며, 수렴도는 0.50~1.00으로 ‘5-2. 소집단 활동’ 문항만 기준 값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반적으로 문항들에 대한 패널들 간의 의견이 긍정적인 합의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문항은 ‘5-2. 소집단 활동(여가 및 치료 레크리에이션, 운동, 모-자녀 협동 놀이)’을 제외한 모든 문항인 ‘5-1. 개별 활동(휴식과 쉼, 자기돌봄 힐링, 한방 힐링, 신체 힐링, 힐링 관광)’, ‘5-3. 개별과 집단 활동의 병행(만들기, 팀별 게임과 퀴즈)’ ‘5-4. 도입과정: 건강 체크와 한방힐링 → 가벼운 놀이와 신체 활동 → 치료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접근’, ‘5-5. 전개과정: 몸 힐링 → 정서 힐링 → 관계 힐링 순으로 접근’, ‘5-6. 마무리과정: 참여자들과의 추억 만들기과 사회적 기부활동 경험’이었다.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간의 변화를 평균 값에 따른 1~3순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에서는 ‘5-5 전개과정: 몸 힐링 → 정서 힐링 → 관계 힐링 순으로 접근’, ‘5-2. 소집단 활동(여가 및 치료 레크리에이션, 운동, 모-자녀 협동

표 9.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형태와 순서

5.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형태와 순서(시퀀스)	1차					2차				
	M	SD	CVR	합의도	수렴도	M	SD	CVR	합의도	수렴도
5-1. 개별 활동(휴식과 쉼, 자기돌봄 힐링, 한방 힐링, 신체 힐링, 힐링 관광)	7.20	1.37	0.60	0.86	0.50	7.80	0.77	1.00	0.88	0.50
5-2. 소 집단 활동(여가 및 치료 레크리에이션, 운동, 모-자녀 협동 놀이)	7.80	1.08	0.87	0.75	1.00	7.87	1.06	0.87	0.75	1.00
5-3. 개별과 집단 활동의 병행(만들기, 팀별 게임과 퀴즈)	7.20	1.70	0.47	0.57	1.50	7.93	0.59	1.00	1.00	0.00
5-4. 도입과정: 건강 체크와 한방힐링 → 가벼운 놀이와 신체활동 → 치료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접근	7.60	0.99	0.73	0.88	0.50	7.60	0.91	0.73	0.88	0.50
5-5. 전개과정: 몸 힐링 → 정서 힐링 → 관계 힐링 순으로 접근	8.47	0.64	1.00	0.89	0.50	8.47	0.52	1.00	0.88	0.50
5-6. 마무리과정: 참여자들과의 추억 만들기과 사회적 기부활동 경험	7.00	1.96	0.20	0.50	2.00	7.60	0.91	0.73	0.88	0.50

놀이)’5-4 도입과정: 건강 체크와 한방 힐링 → 가벼운 놀이와 신체활동 → 치료레크레이션’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에서는 ‘5-5 전개과정: 몸 힐링 → 정서 힐링 → 관계 힐링 순으로 접근’, ‘5-3 개별과 집단 활동의 병행(만들기, 팀별 게임과 퀴즈)’, ‘5-2. 소집단 활동(여가 및 치료 레크레이션, 운동, 모-자녀 협동 놀이)’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순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6.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제2 하나원 내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의 내용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6.73~8.33, 표준편차 0.62~1.28로 나타났다. CVR값은 0.33~1.00으로 나타났으며, 6-2, 6-3, 6-4, 6-8, 6-11, 6-12, 6-13, 6-14번 문항이 타당한 값을 보였다. 또한 합의도는 0.43~0.89로 6-2, 6-3, 6-4, 6-8, 6-9, 6-11, 6-12, 6-14번이 기준 값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렴도는 0.50~2.00으로 6-2, 6-3 문항만 기준 값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부 문항들에서 전문가들 간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6.73~8.33, 표준편차 0.62~1.28로 나타났다. CVR값은 0.20~1.00으로 나타났으며, 6-2, 6-3, 6-4, 6-7, 6-8, 6-9, 6-10, 6-11, 6-12, 6-13, 6-14번 문항이 타당한 값을 보였다. 합의도는 0.63~0.88로 나타났고, 수렴도는 0.50~1.50으로 나타났으며, 6-2, 6-3, 6-4, 6-7, 6-8, 6-9, 6-10, 6-11, 6-12, 6-13, 6-14번 문항이 합의도와 수렴도의 기준 값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수 문항들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이 긍정적인 합의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문항은 공통 내용으로는 ‘6-2. 어울림을 통한 여가 힐링’, ‘6-3. 자

유시간의 휴식과 쉼 힐링’, ‘6-4. 불의 치유 요소를 포함한 쉼 힐링(1일차 저녁 야간 시간)’, ‘6-7. 작품의 일부를 기부하는 사회적 나눔 힐링’ 문항이었다.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간의 변화를 평균 값에 따른 1~3순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에서는 ‘6-3 자유시간의 휴식과 쉼 힐링(숲속 산책<걷기 명상>과 휴식시간 활용 차 명상, 스파, 온천욕’ 순으로 순위를 보였다.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간의 변화를 평균 값에 따른 1~3순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에서는 ‘6-3 자유시간의 휴식과 쉼 힐링(숲속 산책<걷기 명상>과 휴식시간 활용 차 명상, 스파, 온천욕’, ‘6-11 모-자녀 공동의 작품 만들기 체험 활동<소집단 활동>(가족정원 만들기, 하바 플라리움 작업과 나눔 활동, 어울림을 통한 협동화 작업 활동)’, ‘6-14 자기정체성 힐링<소집단 활동>(회상요법을 통한 삶에 대한 감사와 강점 및 삶의 의미 찾기, 주제가 있는 인생 스토리텔링 릴레이(예: 첫사랑, 좋아하는 노래, '하나원에서의 추억', 삶의 의미를 주었던 순간), 릴레이 협동화, 미래의 내 모습 찾기(푸드아트테라피), 가면놀이(남은 인생에서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 알아차리기),’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차에서도 6-3, 6-11, 6-14번 문항이 동일한 순으로 순위를 보였다.

IV.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며,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델파이 분석을 통해 목적, 구성원리, 힐링 방법, 구성요소, 형태와 순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에서 검증된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한 몸과 마음의 긴장감을 해

표 10.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내용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내용		1차					2차				
대상	내용(예시)	M	SD	CVR	합의도	수렴도	M	SD	CVR	합의도	수렴도
모 자 가 정 특 화	6-1. 건강 힐링 - 건강 체크와 한방 힐링	7.60	1.40	0.47	0.63	1.50	7.60	1.18	0.47	0.63	1.50
	6-2. 어울림을 통한 여가 힐링 - 게임, 노래, 댄스 도구를 활용한 치료레크리에이션	7.87	1.13	0.73	0.88	0.50	7.33	1.05	0.60	0.88	0.50
	6-3. 자유시간의 휴식과 심 힐링 - 숲속 산책(걷기 명상), 휴식 시간 활용 차 명상, 스파, 온천욕	8.53	0.52	1.00	0.89	0.50	8.33	0.62	1.00	0.88	0.50
	6-4. 불의 치유 요소를 포함한 심 힐링(일차 저녁 야간 시간) - 캠프파이어	7.27	1.71	0.60	0.75	1.00	7.33	0.82	0.73	0.86	0.50
	6-5. 힐링 관광(강원지역 웰니스 관광)	6.27	2.76	0.07	0.43	2.00	6.73	1.28	0.20	0.71	1.00
	6-6. 가수별 추억 남기기(개별 활동 → 집단 활동으로 연결) - 흔적을 남기고 뿌리를 내리는 나무심기 등	6.73	2.63	0.33	0.57	1.50	6.87	1.06	0.20	0.71	1.00
	6-7. 작품의 일부를 기부하는 사회적 나눔 힐링 - 만들기 체험활동 후 작품의 일부의 자율적 나눔 활동	7.27	1.94	0.47	0.63	1.50	7.27	1.16	0.60	0.88	0.50
	6-8. 모-자녀 분리 개별 활동(어머니용): - 신체적 힐링을 통한 자기돌봄: 소도구 테라피(도구 활용 요가), 아로마 힐링(아로마 향을 음미하여 근육의 이완을 도와 신체 피로를 풀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프로그램) - 정서적 힐링을 통한 자기돌봄: 감정 찾기, 감사 명상, 만다라	7.80	1.15	0.60	0.75	1.00	8.00	1.00	0.73	0.88	0.50
	6-9. 모-자녀 분리 개별 활동(자녀용) - 어울림을 통한 체육활동(도구를 활용한 변형스프츠, 라인댄스, 뉴스프츠 등) - 어울림을 통한 놀이활동(전통놀이, 전통형 레크리에이션, 최신형 레크리에이션 활동, 슬라임 및 도구를 활용한 놀이 등)	7.47	1.25	0.47	0.75	1.00	7.60	1.06	0.60	0.88	0.50
	6-10. 모-자녀 공동의 협동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촉진(소집단 활동) - 캠페인: 겁으로 하는 난타/음악 활동) - 엄마(자녀)와 나누는 서로의 감정 찾기 - 엄마(아들, 유아용 자녀)와 함께 만드는 우리 집(푸드아트테라피)	7.80	1.42	0.47	0.63	1.50	8.07	0.80	0.87	0.88	0.50
6-11. 모-자녀 공동의 작품 만들기 체험활동(소집단 활동) - 가족 정원 만들기(원예치료) - 하바 플라리움(원예치료) 작업과 나눔 활동 - 어울림을 통한 협동화 작업 활동	8.07	1.28	0.73	0.78	1.00	8.27	0.80	0.87	0.88	0.50	
노 인 특 화	6-12. 신체 힐링(개별 활동) - 가벼운 스트레칭 - 숲속 산책(걷기 명상)과 휴식(이완 후 차 마시기)	7.87	1.30	0.60	0.75	1.00	7.67	0.98	0.73	0.88	0.50
	6-13. 생동감과 활기 찾기(소집단 활동) - 캠페인: 겁으로 하는 난타/음악 활동) - 하바 플라리움(원예치료) 작업과 나눔 활동 - 동자중심의 레크리에이션 활동(모델링, 리드미컬하게 걷기, 다함께 왈츠, 둘이서 왈츠 등) - 건강증진 레크리에이션(풍선 배구, 제기차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 - 변형된 전통놀이(대형 옷 투호 등)	7.60	1.06	0.73	0.71	1.00	7.47	0.64	0.87	0.88	0.50
	6-14. 자기 정체성 힐링(소집단 활동) - 화상요법을 통한 삶에 대한 감사와 강점 및 삶의 의미 찾기 - 주제가 있는 인생 스토리텔링 릴레이(예: 첫 사랑, 좋아하는 노래, '하나원에서의 추억, 삶의 의미를 주었던 순간) - 릴레이 협동화 - 미래의 내 모습 찾기(푸드아트테라피), 가면놀이(남은 인생에서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 일러스트하기)	7.93	0.88	0.87	0.75	1.00	8.13	0.64	1.00	0.88	0.50
	6-15. 정체감 관련 뿌리 찾기 체험(소집단 활동) - 북한정원(북한에서 나는 식물/꽃으로 만든 작은 정원관람(원예치료)) - 구급에서 찾아본 고향 마을(통일 지도) - 추억의 전통 놀이 체험과 변형된 민속놀이(대형 옷놀이, 투호, 강강술래 등)	7.00	1.96	0.33	0.43	2.00	7.00	1.25	0.33	0.71	1.00

소하고 자기돌봄과 자기 치유,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들이 긍정 정서(이정희, 김은미, 2014), 정체성 교육(윤현기, 2020)에 주된 목적을 두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목적은 남한사회 적응이나 교육과 달리 긴장감 해소와 자기돌봄을 통해 심신이 치유되는 힐링의 효과와 함께 즐거움과 기쁨, 삶의 의욕, 자기존중감과 같은 긍정심리학적 측면을 동시에 확장해 줄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된 힐링의 구성원리와 구성요소는 “타 기관 힐링 프로그램과의 대상의 차별화” “정체감 관련 뿌리 찾기” 힐링 요소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힐링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통일부 하나원의 의미를 제고하고 부서 간에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힐링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하는 근거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특수적 힐링 원리와 요소로서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ASP(After Service Program)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하나원을 힐링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면, 이들이 남북의 분단 상황에서 경험하는 북한에 두고 가족에 대한 향수, 죄책감과 같은 해결되지 않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요소를 간접적으로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나눔에 대한 힐링적 배치가 제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힐링 방법 측면에서 “협동과 나눔의 힐링”, 힐링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사회적 힐링 요소”, 힐링의 형태와 순서 측면에서 “참여자들끼리의 추억 만들기와 사회적 기부활동 체험”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자분을 간접적으로 습득시켜줄 뿐 아니라 남한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동정적 시선과 시혜적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보다 주체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힐링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삶의 질 치료에서 ‘돕기는 돕는 사람을 돕는다 원칙’에서 말하는 것처럼 타인을 도움으로써 자아 돌보기, 자아 양분 주기, 내적 풍요 등을 성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돕는 활동은 더 높은 단계의 웰빙과 인생의 만족감을 준다는 선행연구(Frisch, 2006)와 일치한다.

구성원리에서 “전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웰니스 접근”이나 건강 및 오감치유 요소의 신체기반 접근의 적절성이 검증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증거기반의 웰니스 심리상담 모델(Myers & Sweeney, 2004)의 가능성을 지지해주었다. 정신과 신체, 정서의 통합과 관련된 상태인 웰니스 패러다임은 신체화를 통해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에도 적합하다 하겠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이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힐링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 내용은 “건강 힐링”이다.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남북하나재단, 2021) 35.4%만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결과와 관련이 있겠다. 특히, 남한 거주기간 10년 이상 응답자의 경우 남한의 의료지원제도는 만족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건강 힐링은 중장기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힐링 내용으로도 적절하다 하겠다. 또한 “힐링 관광”이 힐링 프로그램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역사회기반의 관광 힐링 자원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힐링 관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이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사회문화 발전과 민간자본의 유입을 통한 지역사회문화 산업화와 특화상품 개발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된 정착에 도움을 준다는 최탁인(201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어울림을 통한 여가 힐링”은 여가레크리에이션 관점에서 미국 거주 한인 노인에게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했던 Kensinger 등(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미국 난민 대상 치료레크리에이션의 경우도 트라

우마의 극복에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즐거운 여가활동이 문화적 강점을 표현함으로써 이민자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응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Stack, & Iwasaki, 2009).

그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참여대상의 인지적, 신체적 발달 수준에 적합한 힐링 내용이 검증되었는데 노인 대상 “신체 힐링”이나 자녀들을 위한 “체험중심 활동”, “모-자녀 간의 협동놀이” 등이 그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히 사정한 후, 인지능력과 활용 능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노용구(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가족증진 프로그램이 대화기법 중심인 것(조은숙, 김민경, & 김소영, 2020)과는 구분되었다. 특히, 모자가정의 경우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지닌 부모가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쉽 없이 생각을 하는 작업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쉼의 개별 시간을 지니면서도 자녀와의 관계 힐링을 위해서도 놀이와 체험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힐링 프로그램에서 보편적으로 힐링의 효과를 지닌 힐링의 원리나 요소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대상에 맞는 힐링 내용(전혜미, 배귀영(2020)을 도출해냈다는 점이다. 기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배경을 감안 하지 않고 진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게 거리감이 있는 힐링 활동이 되었거나 힐링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3만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생활하고 있지만 2012년 이후 그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부 내 하나원이 복합적인 힐링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지역사회 배치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힐링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 <표 11>과 같은

표 11.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구분	도출결과	
목적 (8)	① 문화적응 과정에서 오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해소한다. ② 다양한 힐링 체험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진다. ③ 충분한 쉼과 휴식을 통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 ④ 몸과 마음 건강의 조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⑤ 일상의 소중함으로 깨닫고 행복감을 추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⑥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진다. ⑦ 몸과 마음의 여유를 통해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진다. ⑧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구성원 리 (5)	① 전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웰니스 접근 ② 간헐제(한방 힐링 포함) 및 오감 치유 요소를 도입 한 신체기반 접근 ③ 대상자 욕구에 기반한 활용영역과 프로그램 내용변형 ④ 타 기관 힐링 프로그램과 대상의 차별화 ⑤ 타 기관 힐링 프로그램과의 공간 활용 차별화	
방법 (7)	① 재미있는 놀이중심 힐링 ② 활동중심의 힐링 ③ 체험중심의 힐링 ④ 표현중심의 힐링 ⑤ 협동과 나눔의 힐링 ⑥ 개별적 힐링과 집단적 힐링의 병행 ⑦ 참여자가 선택하고, 추후 참여를 고려한 가변적 적용	
구성요 소 (6)	① 정체감 관련 뿌리 찾기 ② 사회적 힐링 요소 ③ 자연치유적 요소 ④ 동작 활용의 치유 요소 ⑤ 정서적 힐링 요소 ⑥ 오감 치유 요소	
형태와 순서 (5)	① 개별 활동(휴식과 쉼, 자기돌봄 힐링, 한방 힐링, 신체 힐링, 힐링 관광) ② 개별과 집단활동의 병행(만들기, 팀별 게임과 퀴즈) ③ 도입 과정: 건강 체크와 한방 힐링→ 가벼운 놀이와 신체 활동→ 치료 레크리에이션 순 접근 ④ 전개 과정: 몸 힐링→ 정서 힐링→ 관계 힐링 순 접근 ⑤ 마무리 과정: 참여자들과의 추억 만들기와 사회적 기부활동 경험	
프로그램 내용 (11)	공동 (4)	① 어려움을 통한 여가 힐링 ② 자유시간의 휴식과 쉼 힐링 ③ 불의 치유 요소를 포함한 쉼 힐링 ④ 작품의 일부를 기부하는 사회적 나눔 힐링
	모자 (4)	① 모자녀 분리 개별활동(어머니용) ② 모자녀 분리 개별활동(자녀용) ③ 모자녀 공동 협동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촉진 ④ 모자녀 공동 작품 만들기 체험 활동
	노인 (3)	① 신체 힐링(개별활동) ② 생동감과 활기 찾기(소집단 활동) ③ 자기 정체성 힐링(소집단 활동)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의 목적은 17개가 제안되었으며, 이중 8개가 긍정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북한이탈주민의 힐링 프로그램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오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해소한다, 다양한 힐링 체험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진다, 충분한 쉬과 휴식을 통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 몸과 마음 건강의 조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일상의 소중함으로 깨닫고 행복감을 추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다, 몸과 마음의 여유를 통해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진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의 목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는 총 10개가 제안되었으며, 이중 5개가 긍정적 합의를 나타냈다. 북한이탈주민힐링 프로그램 구성원리는 “전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웰니스 접근, 건강체크 및 오감치유 요소를 포함한 신체기반 접근, 대상자 욕구에 기반한 활동 영역과 프로그램 내용의 반영, 타 기관 힐링 프로그램과의 대상의 차별화, 타 기관 힐링 프로그램과와 공간 활용 차별화”로 접근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방법은 총 10개가 제안되었으며, 이중 7개가 긍정적 합의를 나타냈다. 힐링 방법은 “재미있는 놀이중심의 힐링, 활동중심의 힐링, 체험중심의 힐링, 표현중심의 힐링, 협동과 나눔의 힐링, 개별적 힐링과 집단적 힐링의 병행, 참여자가 선택하고, 추후 참여를 고려한 가변적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총 8개가 제안되었으며, 이중 5개에 대한 긍정적 합의를 나타냈다. 힐링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정체감 관련 뿌리찾기, 사회적 힐링 요소, 자연치유적 힐링 요소, 동작활용의 치유요소, 정서적 힐링 요소, 오감치유요소”가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형태와 순서는 5가지 형태와 단계가 제안되었으며, 이중 4가지에 대한 긍정적 합의를 나타냈다. 따라서 “개별활동, 개별과 집단활동의 병행, 도입, 전개, 마무리 과정”의 시퀀싱이 분석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의 내용은 총 15개가 제안되었으며, 이중 “공통프로그램 4개, 모자가정 특화 프로그램 4개, 노인특화프로그램 3개” 등 총 11개에 대한 긍정적 합의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전문가 FGI 1회, 델파이 조사 2회로 최종 3차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도출하였고, 기존의 델파이 분석 연구 방법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문가 중도 탈락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도는 높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델파이 조사를 2차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델파이 조사회수가 충분하지 않았고, 연구 참여자의 전문가 경력의 차이가 있어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매뉴얼 개발 및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정우(2014). 노년 세대의 문학이 가지는 치유의 기능. *문학교육학*, 44, 73-106.
- 김현아(2016).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12(1), 105-124.
- 김현아, 조영아, 김요완(2012). 북한이탈주민 가족 유형 분석 및 지원방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하나재단(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노용구(2012).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1), 603-611.
- 노진원, 김현아, 김유정, 박현준, 우종민(2016).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연구방향 도출.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5(3), 185-193.
- 박수현, 박주영(2015). 통합형시니어건강힐링프로그램이 건강관심도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4(4), 523-531.
- 박은식(2007). 레크리에이션 치료가 재미 한인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9), 435-441.
- 배상희, 최미영, 이영희, 신정은, 장양민(2020). 마그마 힐링 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농촌간호학회지*, 15(1), 16-29.
- 변미희, 강기정(2005).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대안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2(1), 127-150.
- 통일부(2022).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2022.07.19.
- 서경아, 정종원(2020). 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공감능력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23(1), 17-35.
- 송미애(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랑플러스'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복지상담 대학원.
- 송성섭, 김민규(2013).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연구. *여가학 연구*, 11(1), 179-196.
- 윤현기(2020).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힐링캠프 경험을 통한 심리변화 연구(정체성 교육 중심). *기독교와 통일*, 11(2), 141-169.
- 이정희, 김은미(2014). 산림치유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58-59.
- 이현주, 오보람, 이은혜(2009). 북한이탈여성노인의 남한사회 정착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4), 1501-1520.
- 전명희(2011). 새터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 연구*, 8, 101-123.
- 전혜미, 배귀영(2020). 탈북여성 노인의 생애 기억에 담긴 감정정화 경험에 관한 생애사 연구-민요 춤 체험을 통한 접근. *영남 춤학회지*, 8(1), 155-173.
- 정현정(2009). 음악심리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은숙, 김민경, 김소영(2020). 북한 이탈주민 가족관계 증진 단기 프로그램 개발. *가족과 문화*. 32(1), 70-101.
- 최락인(2017). 탈북 이주민 정착을 위한 문화산업 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개발. *예술인문*, 7(1). 479-488.
- Carter, M. J., Van Andel, G., & Robb, G.(1985). *Therapeutic recreation. A practical approach*, St. Louis, Missouri: Mosby College Publishing,
- Crumbie, V., Olmos, F., Watts, C., Avery, J. Nelson, R.(2015). The Impact of dance interventions on mood and depression in older adults.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49(2). 187-190.
- Dattilo, J. & McKenny, A.(2016). *Facilitation techniques in therapeutic recreation third ed.* Venture.

- Frank, J. D.(1973). *Persuasion and healing: A comparative study of psychotherapy*, Rev.
- Frishc, M. B.(2006). *Quality of life therapy*. John Wiley & Sons.
- Hartwig, K. A., Kari A., Mason, M.(2016). Community gardens for refugee and immigrant communities as a means of health pomotion megha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41*(6), 1153–1159.
- Oxford dictionary(2022). Healing.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healing>. 2022.07.08
- Kensinger, K., Gearig, J., Boor, J., Olson, N., Gras, T., Stumbo, N., & Singleton, J. (2007). A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for international refugees in a Midwest community.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41*(2), 148.
- Lawshe, C. H.(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Myers, J. E., & Sweeney, T. J.(2004). The Indivisible Self: An evidence-based model of wellness.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60*, 234–244.
- Nagata, S., McCormick, B. P., & Austin, D. R.(2020). Physical activity as treatment for depression in recreation therapy: Transitioning from research to practice.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54*(1). 77–91.
- Stack, J.A.C. & Iwasaki, Y.(2009). The role of leisure pursuits in adaptation processes among Afghan refugees who have immigrated to Winnipeg, Canada. 239–259. (<https://doi.org/10.1080/02614360902951658>.)
- Wu, Y. L, Chao, S. R., Tsai, W. F., Chen, M. L.(2020), The Effect Of Horticultural Program With Life Contexts On The Cognitive Function Of The Elderly In Taiwan. *Problems of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78*(5), 856–872.